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4. 2. 6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NYCB 이슈,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

오늘의 차트

최근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개선과 향후 전망

칼럼의 재해석

미국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법안 초당적 합의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채권/자산배분
Analyst 윤여삼
02. 6454-4894
yeosam.yoon@meritz.co.kr

NYCB 이슈,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

- ✓ 2023년 3월 SVB 파산으로 불거진 미국 중소 지역은행 리스크, NYCB 이슈로 다시 부각
- ✓ SVB 때와는 달리 채권평가손실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아닌 상업용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라는 인식. 미국 지역은행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저 높다는 점에서 부담
- ✓ 현재 금융시장 미치는 충격 SVB 당시보다 제한적이나, 묵혀온 부동산 손실 털고 갈 시점. 최근 과도해진 위험선호에 경계감을 높이는 반대급부로 안전자산인 채권투자 긍정적 재료

NYCB 주가급락, SVB와 다르지만 시장 경계심리 자극

1월 FOMC 결과 직후
미국채10년 금리 3.8%대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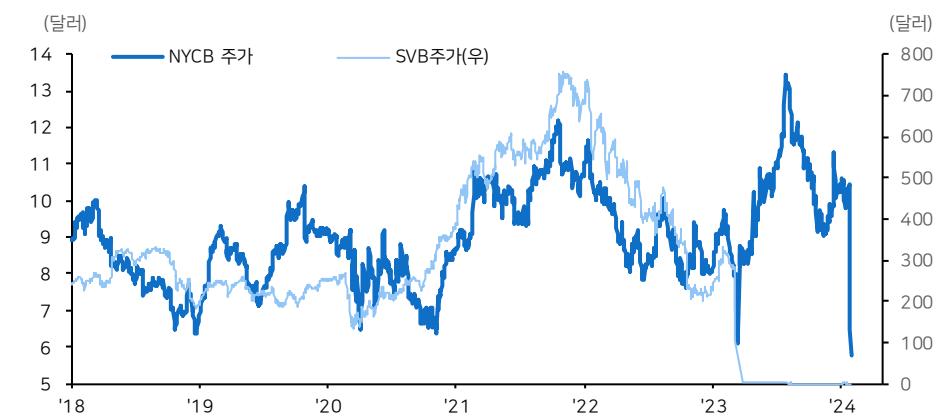
1월 FOMC 결과 확인 직후 미국채10년 금리는 3.8%대까지 내려왔다. 31일 당일 발표된 미국 주요(ECI, ADP 등)지표가 둔화되기도 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는 시장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당일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 주가도 30%대 급락해

당일 미국채 금리 하락과 동시에 주가도 하락했는데, 3월 인하기대 후퇴를 이유로 들기에는 금리가 같이 하락해 설명력이 떨어진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가 FOMC 당일 35%가 넘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뱅크(SVB) 파산으로 불거진 지역은행 위기와 NYCB의 유사성이 엿보이자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다<그림 1>. SVB는 채권투자에 따른 유동성 위기였다면, NYCB는 부동산 투자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그림1 2023년 SVB 파산 이후 1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NYCB 은행 주가 하루 30%대 급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상업용 부동산은 평가손실 부담
누적에 따른 롤오버 위험이 잠재

국채와 모기지 같은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BTFP와 같은 유동성기구로 위험을 극복해 왔지만, 상업용부동산은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부담이 누적되어 있어 만기재투자(roll-over) 위험이 잠재되어왔다. 가뜩이나 파산한 시그니처뱅크를 인수한 NYCB라는 점에서 무리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다.

시그니처 뱅크 인수 후 익스포져
줄었으나 여전히 문제는 심각

NYCB가 발행한 채권금리는 8% → 11%대로 급등하면서, 채권가격은 100달러대에서 SVB 사태가 터졌던 당시 저점수준인 80달러대로 하락했다<그림 2>. NYCB는 이전부터 상업용부동산 투자 익스포져가 자산의 70%로 부담이 큰 회사였는데,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여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면서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는 40%대로 줄었음에도 평가 상 문제가 심각하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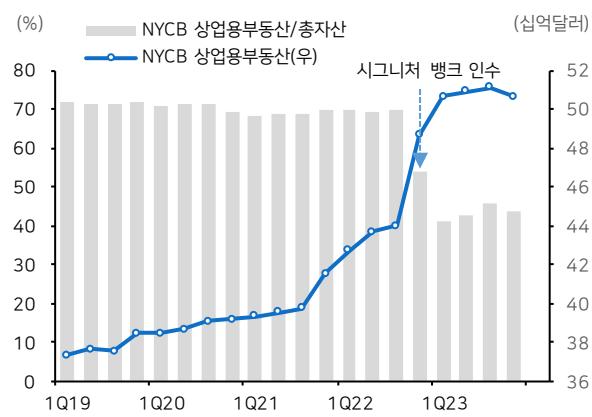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5년 내외 정도 부동산 재투자 위험이 불거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10년대 후반 물건이 이제 문제(부실자산)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펜데믹 직후 2020~2021년 부동산 열기가 더 과열이었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2025년이 금융환경 여건에 따라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림2 NYBC 채권금리 11%대 급등, 채권가격은 SVB때보다 높지만 만기축소 감안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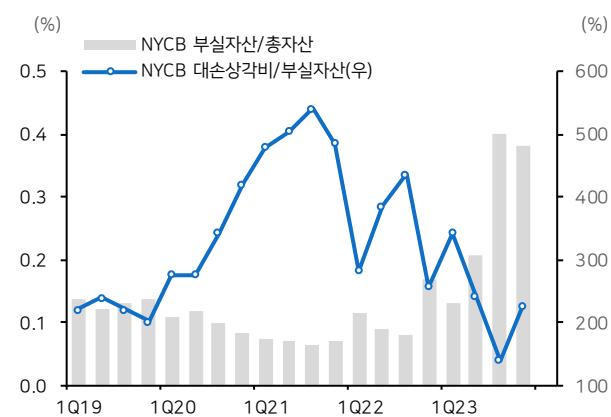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그니처 은행인수 후 CRE/자산 비중이 줄었지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부실자산 증대로 NYCB 안정성 약화된 것으로 평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묵혀온 상업용부동산 손실, 2024년 극복해야 할 문제

미국중심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ommercial Real-Estate; CRE) 리스크는 2022년부터 거론되어 왔다. 사실 지난해 SVB 사태가 발생할 때 시장은 채권시장 평가 손실에 따른 리스크보다 CRE문제를 더 주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좋은 채권대비 부동산 자산은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터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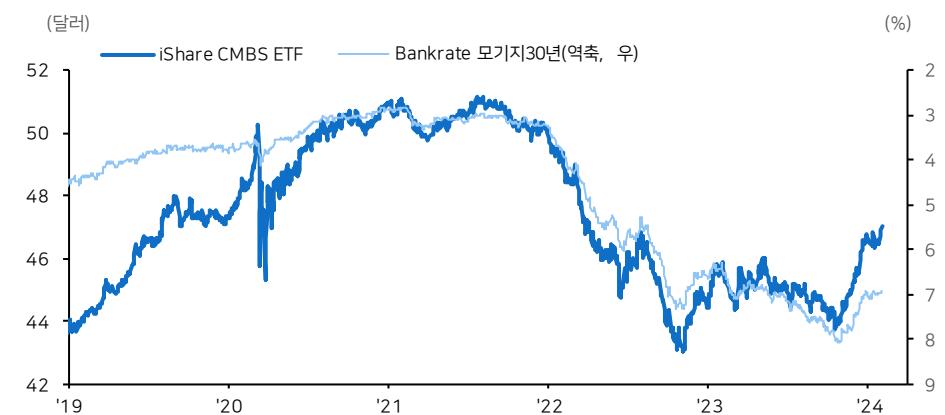
모기지 금리 반락으로 CRE 가격 반등하며 CMBS 투자 손실 축소

미국 CMBS ETF 수익률은 상업용부동산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데, 2022년부터 모기지금리가 급등하면서 CRE 가격은 50달러에서 2023년 3분기까지 44달러까지 10% 이상 하락했다<그림 5>. 그러나 최근 모기지 금리가 6%대까지 하락하자 CRE 가격도 반등하면서 이전 투자자들의 손실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달금리는 과거 대비 300bp 이상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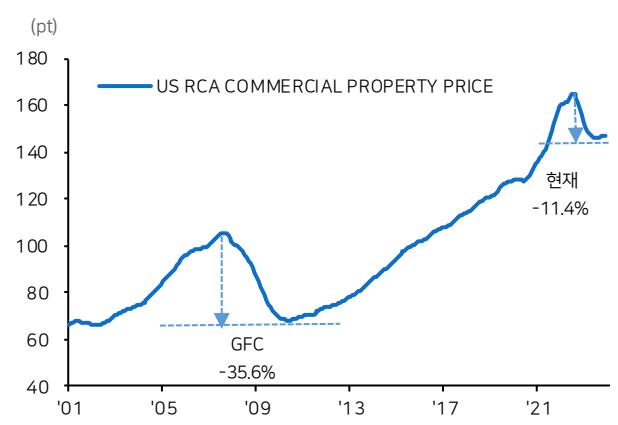
손실이 줄었다고 하나 문제는 이전의 3~4%대 모기지금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금리가 7% 내외로 300bp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치 자체평가도 문제지만 롤오버 비용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ETF는 임대수익률을 감안한 개선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CRE 가격은 개선은 부진하다.

그림5 미국 CMBS 투자, 두 자릿수 손실에서 금리하락으로 부담 줄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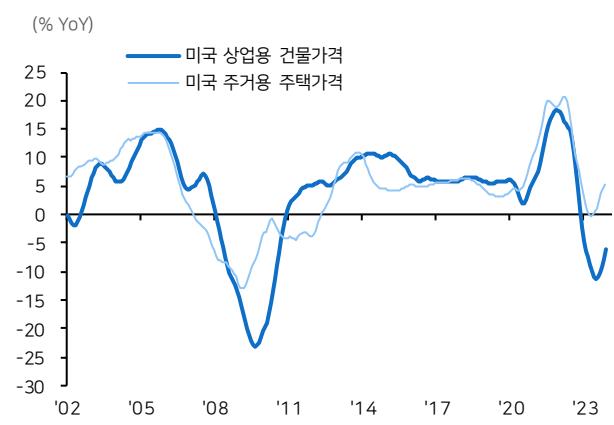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2008년 금융위기 만큼은 아니지만 가격하락 부담



자료: US RC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거용대비 상업용 가격회복 탄력 낮은 편



자료: US RCA, S&P Case-Shill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손실 부담 커

주거용과 달리 상업용은 구조조정 이제 시작, 오피스는 여전히 부진

미국 오피스 공실률 평균치 상회하며 상승세 이어지는 중

RCA에서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가격지수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5% 이상 급락한 것보다 이번 국면의 하락은 크지 않지만, 11% 손실은 15년 이래 가장 큰 손실이다<그림 6>. 공급조정 및 거래비용 증대로 상대적으로 주거용부동산 가격은 신규주택중심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2023년 반등도 했지만, 상업용부동산은 하락속도가 줄어든 수준에서 숨 고르기 중이다<그림 7>.

부동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건설투자가 먼저 줄어들면서 공급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선행적인데, 주거용은 2021년부터 시작된 반면 상업용은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이는 펜데믹 구간에서 초기 타격이 커던 호텔가격이 상대적으로 최근 안정적인데 반해, 상업용부동산 핵심인 오피스 부진이 지속되는데서도 확인이 된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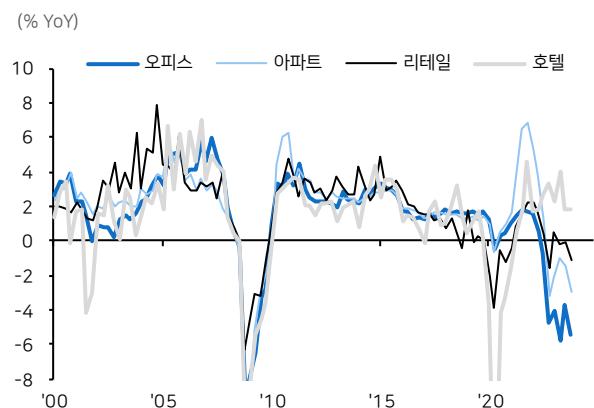
오피스는 평균 공실률이 18% 내외 수준인데 2023년 들어와 20% 수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른 투자 건보다 위축이 심하다<그림 10>. 미국 거점도시 건물들의 경우 2023년 거래가의 30~50% 하락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되었다.

그림8 공급부담을 먼저 덜어낸 주거용대비 상업용 건설투자 이제 구조조정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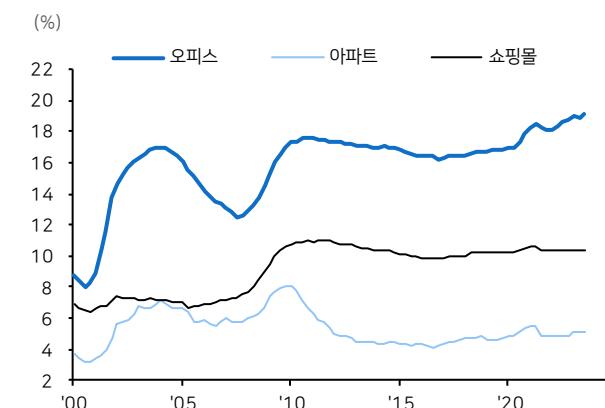
자료: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용도별 상업용부동산 가격, 오피스 하락폭 가장 커



자료: US NCREI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공실률 역시 오피스는 아직 부실 쌓이고 있어



자료: US RE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금리상승세는 진정됐으나 조달 여건은 과거 대비 위축된 점 부담

최근 금리상승세는 진정되었다고 하나 연말에 연준의 양적축소(QT)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조달여건이 과거보다 위축된 점도 부담이다<그림 11>. 중소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대형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NYCB 사태 이후 대출태도는 자칫 더 부정적일 수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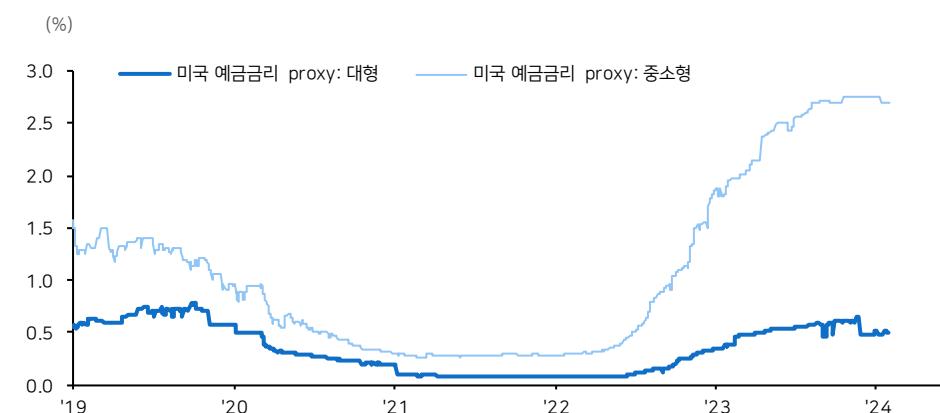
미국 소형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져 높아 상당히 취약해져

미국 소형은행들의 상업용부동산 투자가 2023년에도 꾸준히 늘어 2조달러 수준에 육박하는데, 이는 해당은행 자산의 30% 수준으로 수익성을 위해 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그림 12>. NYCB의 경우 자산이 늘어나면서 CRE/자산 비율이 40%를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형은행들이 상업용부동산 잔액이 1조달러, 자산의 6%대인 것에 비해 심각하다<그림 13>.

일각에서는 대형은행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하나 주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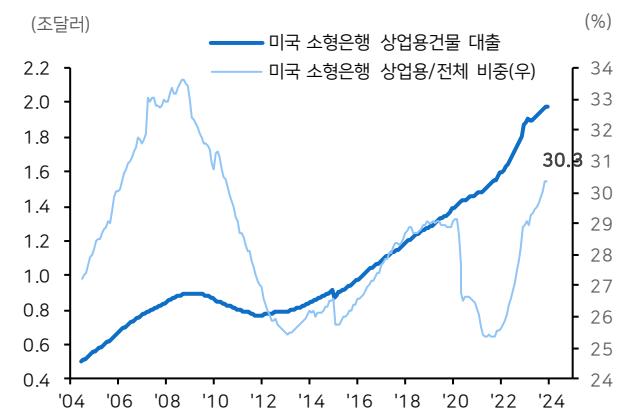
혹자들은 그래도 소형은행 이슈로 대형은행 전이 위험은 낮다고 안심하나 스타우드 캐피탈의 스텐리히트 평가는 '전체 상업용부동산 3조달러 잔고 중 가치가 1조 8천억 달러로 하락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유동화증권인 리츠 손실까지 감안할 때, 서브프라임 같은 위험은 아니라도 주목할 필요성은 높다.

그림11 중소형 은행 조달금리 상승세 주춤해진 점은 긍정적, 구조조정 과정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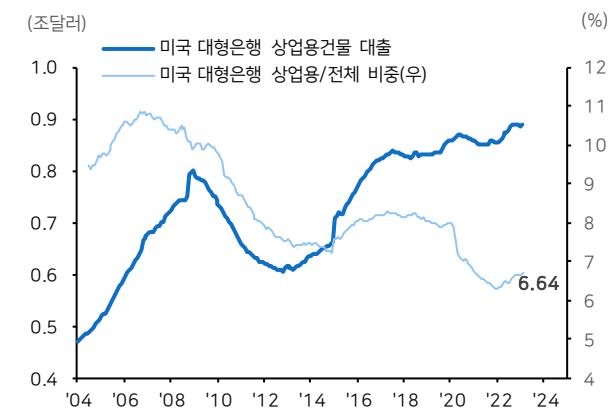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중소형 지역은행,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30% 수준



자료: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반면 대형은행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6%대 안정적



자료: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전염도는 낮은 편, 안전자산 국채금리 긍정적 재료

2025년까지 미국 상업용부동산 위험 덜어내는 과정 이어질 것

금리 급등기 내내 불안해온 미국 상업용부동산 위험은 정작 금리가 반락하자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리하락이 일부 평가부담을 덜어낸다고 해도 롤오버 비용증대와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위험을 덜어내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업용부동산 여파로 일본 아오조라 은행도 주가 급락

이는 미국내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미국 상업용부동산을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 전체의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의 중소은행인 아오조라 은행은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대외투자 실패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겪었다<그림 14>.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독일 도이치뱅크 또한 충당금 규모를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면서 부실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일본 아오조라 충격은 일본 금융 전반 우려 끼칠 정도는 아냐

그나마 일본의 아오조라 충격은 엔화 약세로 강세를 이어간 일본 금융주 전반에 우려를 끼칠 정도는 아니다<그림 15>. 그리고 2022년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의 충당금 설정 등 일부 대비도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14 일본 중소은행 아오조라, 미국 부동산투자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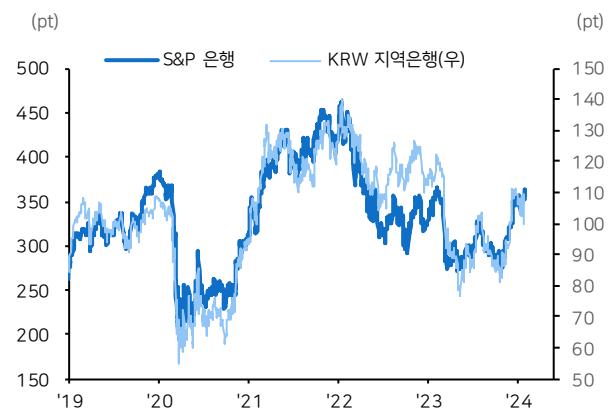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일본 전반적 금융기관 확산될 문제까지 아니야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미국 지역은행 약세대비 다수 은행주가 안정적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하이일드 채권시장 충격 역시 제한적인 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실제로 미국 하이일드 채권시장 반응 역시 제한적인 모습 보여

실제 1월 31일 NYCB 문제가 터지고 미국 지역은행 주가 ETF 수익률은 -8.8%를 기록한 반면, 미국 전체 은행주 주가하락은 겨우 -1.3%에 불과했다<그림 16>. 금융기관들의 연계성에 아직 주의가 필요하나 하이일드 채권시장에서도 NYCB 금리급등 대비 전체 시장금리는 큰 반응이 없었다<그림 17>.

현재 미국 산업용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잘 알려진 위험이라는 점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는 격언까지 더해져 일단 NYCB 문제는 SVB 당시보다는 한정된 금융기관 이벤트성으로 보고 있다. SVB 당시에도 연쇄적인 이슈가 불거져야 하는데 아직은 잠잠하다.

통화정책 완화기대가 고조되며 금융환경 과도하게 완화

2023년 12월 FOMC 이후 미국 통화정책 완화기대가 고조된 이후 미국 금융환경 지수를 보면 금융시장 완화정도는 과도할 정도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1월 FOMC 이후에도 미국 주가는 NYCB 충격에도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그림 18>. 그렇지만 묘한 딜레마는 1월 미국 고용지표가 매우 양호한 숫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채10년 금리가 다시 4.0%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림18 완화적인 금융환경, 상업용부동산 문제 심각해지면 민감도 높아질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미국채10년 3.8% 하단인식, 양호한 지표영향 4% 중심라인 등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미국채 금리 재차 반등하며
채권평가손실 문제 부상 가능성

미국 상업용부동산 위험 2024년
보다 2025년에 부각될 수 있어

상업용부동산 문제, 연말로 갈수록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양호한 미국경제로 인해 금리가 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2023년 2월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경제로 인해 3월까지 미국채10년 금리가 재반등하는 구간에서 채권평가손실 문제가 부상했었다<그림 19>.

우리는 이전부터 강조했지만 2024년 상업용부동산 문제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단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팬데믹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부채(debt)의 문제는 한번은 털고 가야할 '무거운 짐'이라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 2024년보다 2025년에 도래할 미국의 하이일드와 상업용부동산 재투자 위험은 2025년 위기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 금리 인하 실시 전까지 금리안정 강도에 따라 줄여야 할 부채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NYCB발 상업용부동산 문제는 급성은 아니지만 만성질환으로 올해 뒤로 갈수록 채권시장에 우호적 재료가 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림20 아직 신용이벤트 영향으로 연방금리 인하기대 민감도 높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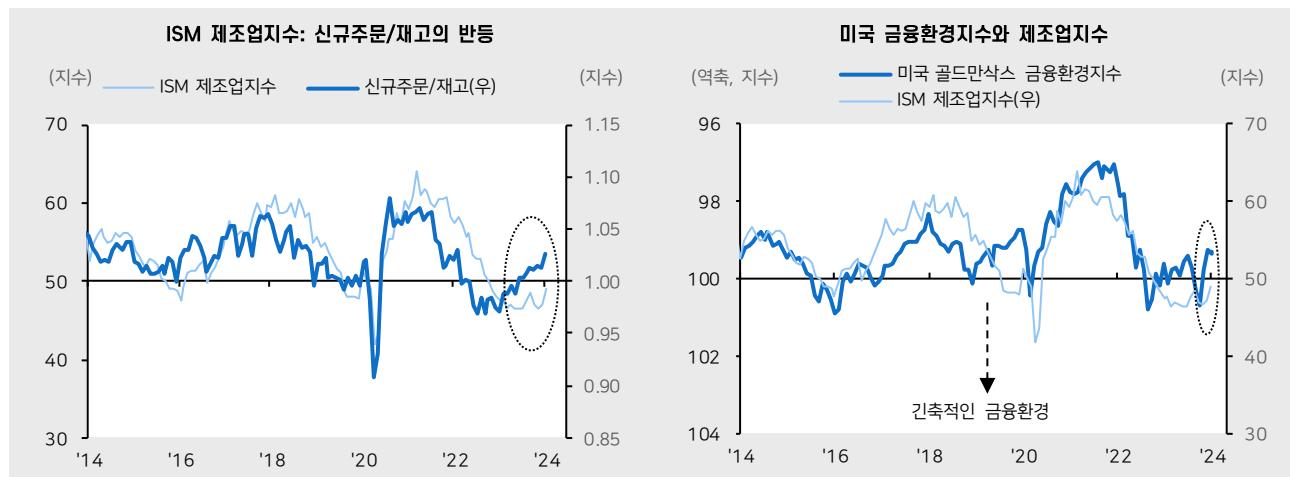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오늘의 차트

이승훈 연구위원

최근 미국 ISM 제조업지수의 개선과 향후 전망



자료: ISM, Goldman Sach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제조업 업황 예측에 용이한 ISM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발표하며, 제조업 업황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2023년 10월, ISM 제조업지수가 46.7로 9월 49.0보다 2.3pt 하락하자 제조업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긴축적인 금융환경과 자동차 업계 파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최근 ISM 제조업지수의 상승

실제로 2월 2일 발표된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는 49.1로 전월치(47.4) 및 예상치(47.2)를 모두 상회했다. 앞으로도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회복 지속 기대 근거

1) 신규주문/재고 비율 상승

첫째, 신규주문/재고 비율이 최근 상승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비율은 2023년 1월 0.97로 바닥을 다진 후 2024년 1월 1.03까지 상승했다. 이는 Headline 제조업지수에 3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에, 시차를 두고 제조업지수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성이 존재한다.

2) 금융환경의 완화

둘째, 미국의 금융환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에서 집계하는 금융환경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아질수록 긴축적인 금융환경을 의미한다. 2023년 상승세를 보이다 10월 100.68을 기록한 후, 최근 2월 99.28까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더욱 원활해질 것이고, 이에 힘입어 제조업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제조업의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전히 지수가 50을 하회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장 국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1) 신규주문/재고 비율 상승, 2) 금융환경지수의 하락을 기반으로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칼럼의 재해석

윤여삼 연구위원

미국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법안 초당적 합의 (The New York Times)

지난 1월 16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자녀양육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를 포함하는 78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17세 미만 자녀 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하던 세액 공제 상한선을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것과 환급액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2025년에는 자녀 당 100달러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특히 다자녀를 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증가하게 된다.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정책의 효과성 및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Child Tax Credit 확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유의미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 내 가족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개정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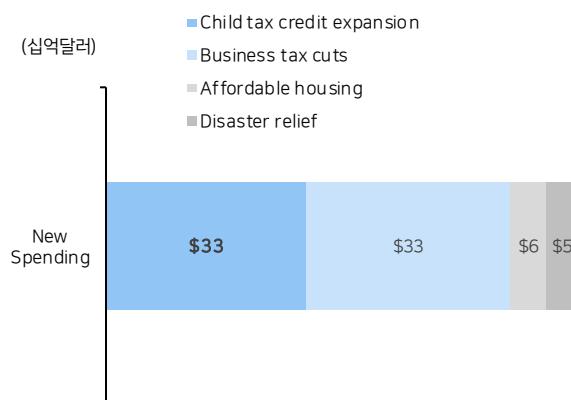
미국 하원에서 Child Tax Credit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

지난 1월 16일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 위원장 Jason Smith와 상원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Ron Wyden은 자녀양육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를 포함하는 78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그림 1). 그리고 1월 31일 미국 하원은 세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The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 of 2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

새 법안 시행으로 50만 명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은 현행법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하던 세액 공제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것과 환급액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2025년에는 자녀 당 100달러 정도를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아직 상원의 검토가 남았지만, 예산정책연구소(CBPP;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분석에 따르면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1,60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50만 명(첫 해에는 약 40만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그림1 780억 달러 규모 세법 개정안의 구성 항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50만 명의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Bipartisan Child Tax Credit Proposal Would Lift Some Half a Million or More Children Above the Poverty Line When Fully in Effect

In its first year

As many as 400,000 children
lifted above poverty line

When fully in effect

Some 500,000 or more children
lifted above poverty line

자료: CBP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TC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소득층 세액 공제 상한액 조정

CTC 현행법: 자녀 당 2,000달러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1,600달러

CTC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가족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17세 미만의 자녀(부양 가족) 한 명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최대 2,000달러, 즉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소득에 따라 일부 가족은 부분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가족의 연간 소득이 없거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500 달러 이상의 연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 한 부모 가정은 연 소득 200,000달러, 부부의 경우 연 소득 400,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부터 세액 공제액이 상한선인 2,000달러에서 점차 다시 축소되기 시작해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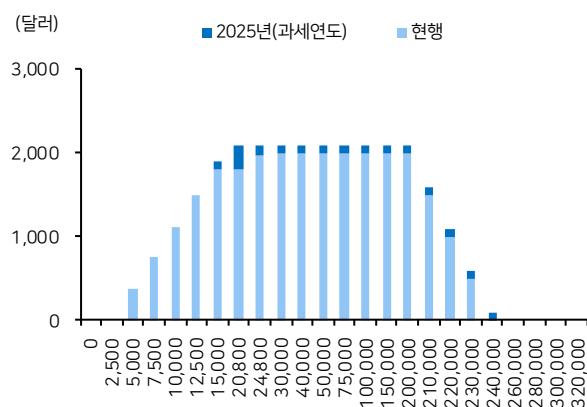
CTC 개정안: '25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당 2,000달러로 점차 확대'

한편, 합의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CTC 확대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세액공제액이 기존 최대 1,600달러에서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점차 확대된다. 즉, 기존 현행법 상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환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CTC 개정안: 자녀 1명 당
100달러 정도의 추가 환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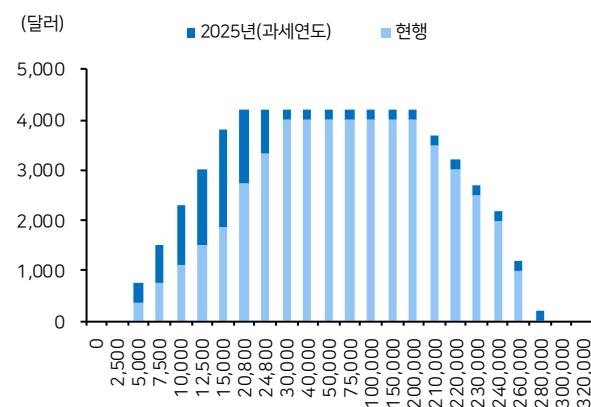
또한, 과세연도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자녀 당 2,000달러의 세액 공제 상한선이 조정될 수 있다. 예산정책연구소(CBPP)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100달러 정도의 추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3, 4, 5>. 마지막으로, 전년도 소득 혹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 중 원하는 소득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3 소득별 자녀 1인 가구 기준 CTC 환급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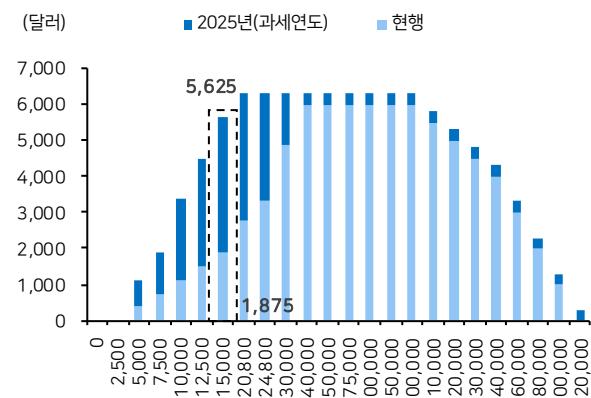
자료: Brookings Tax Policy Center, CBP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소득별 자녀 2인 가구 기준 CTC 환급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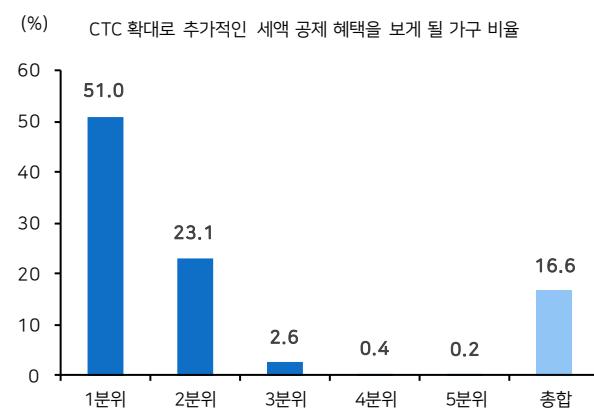
자료: Brookings Tax Policy Center, CBP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소득별 자녀 3인 가구 기준 CTC 환급액 비교



자료: Brookings Tax Policy Center, CBP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CTC 확대에 따른 효과 집중



자료: Brookings Tax Policy Cen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hild Tax Credit 개정안,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는 제한적

CTC 확대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특히 다자녀를 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증가하게 된다<그림 6>. 예를 들어 3명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 연 소득 15,000달러를 벌어들일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는 1,875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기존 환급액의 세 배에 달하는 5,625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정적자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물론 이와 같은 저소득층 및 빈곤 문제 완화를 통한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혜택은 2025년 이후 종료될 것이기에 일시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액 공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정부 지출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기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CTC 확대로 재정적자가 유의미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그러나 우려와 달리 Child Tax Credit 확대가 미국 재정적자의 유의미한 추가적인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팬데믹 당시 통과되었던 '미국구조계획법안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른 CTC 확대(세액공제 상한선 3,000달러)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세액 공제 확대 규모가 현저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 관련한 미시적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양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미국 내 가족 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다는, 단지 미국의 복지 정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원문: Who would benefit from the Child Tax Credit expansion? (The New York Times)